

‘中企 통합플랫폼’ 접속 한 번으로 중기부 모든 지원사업 간편 신청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 발표
중소·소상공인 접근성 강화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하나로 통합
AI로 신청서·계획서 작성 지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 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한 번만 접속하면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유관기관의 시스템들도 기능별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관심 공고, 상담 기록 등 개별 데이터를 학습해 지원사업 맞춤 추천, 상권 분석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공고 시점, 신청 절차 등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서와 연구개발(R&D) 계획서 작성까지 지원에 신청 과정의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제2회 OpenDataX AI 챌린지)를 확대한다.

프로젝트 참여 스타트업에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PoC) 자금 및 개발 인프라(그래픽

처리장치 등) 등을 지원한다. 우수 결과는 본 계약으로 연계해 실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대상 AI 도구 활용 교육,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와 유관기관 내부적으로는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AX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 활용, 정책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대한 개방해 혁신 서비스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워커힐, ‘AI 호텔’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SK네트웍스 효자사업으로 각광
프린트·백오피스 등 AI 생태계 구축
오프라인서도 고객 AI 경험 확장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워커힐)가 2023년 턴어라운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탄탄한 수익력을 보이며 SK네트웍스의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와 인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호텔 산업 문법에서 벗어나, AI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접목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워커힐만의 차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개관 63주년을 맞은 워커힐은 ‘AI 호텔’ 전환을 본격화하며 프린트 서비스부터 백오피스까지 전방위적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대표 사례인 ‘워커힐 AI 가이드’는 ChatGPT-4o 기반 다국어 안내 서비스로,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3만명을 넘기며 FIT 고객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동선 추천, 메뉴 안내, 예약 연동 등 개인화 기능이 강점이다.

오프라인에서도 AI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워커힐 AI 라운지’에서는 고객이 AI 안내에 따라 호텔 내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아트 미션’을 수행하며 디지털과 현실이 결합된 경험을 제공한다. 와인 행사에는 AI 도슨트 ‘픽 와인 업’을 도입해 개인 취향 기반 추천과 시음 동선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로는 AI 기반 업무 시스템 ‘와이즈’를 통해 매출 데이터를 기존 30~40분에서 1분 내 조회할 수 있도록



그랜드 워커힐 서울 1층 로비에 마련된 ‘워커힐 AI 라운지’.
/SK네트웍스

선택했다. 단순 업무를 줄이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하드웨어 경쟁력도 강화했다. 골프연습장을 리노베이션한 ‘워커힐 골프클럽’에는 스윙 분석기와 AI 피팅 센터를 도입했으며, 테니스 시설 ‘테네즈 파크’,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 웰니스 프로그램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종 산업과의 융합도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셔클’을 도입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험 중이다.

유통 영역에서는 모바일 앱 ‘워커힐 스토어’를 통해 김치·HMR 등 PB상품을 판매하며 D2C 구조를 구축했다. ‘워커힐호걸 김치’는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되며 글로벌 확장도 이어가고 있다.

워커힐은 향후 ‘WISE 2.0’을 통해 내부·외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가이드를 예약까지 가능한 종합 에이전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로봇틱스 기반 이동 서비스와 프리미엄 김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초고압·해저케이블 사업 강화

1분기 매출 15%·영업익 44% 증가 전망
실적개선, 초고압 프로젝트 매출 영향
대응 위해 당진에 해저 2공장 건설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중심의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수익 초고압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과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이 맞물리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한전선의 1분기 매출을 9879억원, 영업이익을 39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8%, 44.03%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360억원, 영업이익 1286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도 3조6600억원으로 사상



대한전선 당진해저케이블 2공장 조감도.
/대한전선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실적 개선 배경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주한 고수익 초고압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턴키 비중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다. 글로벌 전선 시장은 당분간 공급자 우위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

설, 노후 전력망 교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에 해저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에는 640킬로볼트(kV)급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400kV급 초고압교류송전(HVAC)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여경협, 펌테크 기술보유 25개사 지원

이달 30일까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달 30일까지 펌테크 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펌테크’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을 위한 기술,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16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초 씨엔터테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끝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여경협이 주관한다.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펌테크 기술 보유 기업 25개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지원금 지원, 교육·멘토링·IR 프로그램 참여, 국내외 전시출전, 모태펀드·VC 후속투자 연계 등 펌테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시행한다.

사업지원금은 제품 및 기술 수준과 사업성에 따라 기술선도형과 기초응용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HMM, MA2 서비스로 스페인-서아프리카 잇는다

대형선, 핵심거점 항만 간 운송
피더선, 거점 중심 지선망 구축

HMM이 7월부터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Mediterranean West Africa)’를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HMM은 ‘2030 중장기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브앤스포크(Hub&Spoke)’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형선이 유럽 등 원양 항로의 핵심거점 항만(Hub) 간 운송을 책임지던,

피더선(Feeder Ship)이 그거점을 중심으로 지선망(Spoke)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원양과 근해 항로 사이에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MA2 서비스는 이러한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구체화한 지선망으로, 지중해 핵심거점 항만인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중심으로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들을 연결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항하지 않던 아프리카를 연계함으로써 대화주 서비스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일본 ONE와 공동 운항하는 이번 서비스는 7월 둘째 주 알헤시라스에서 시작되며, 28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된다. 왕복 35일이 소요되며, 기항지는 알헤시라스-탕헤르(모로코)-다카르(세네갈)-테마(가나)-레키(나이지리아)-아비장(코트디부아르) 순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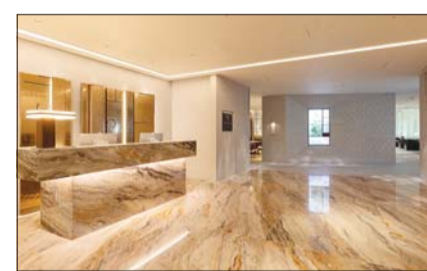
대한항공, 통합 앞두고 라운지 2곳 재단장

‘내 집 같은 편안함’ 컨셉으로 조성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 리뉴얼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는 250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는 248-249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16일 오전 4시부터 고객들을 맞이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식음료(F&B)와 부대시설을 강화해 기존 라운지와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